

# 이낙연 '새해 신당론'... 이재명은 '긴 침묵'

## 이낙연 "국민께 새 기대를 반이재명 연대 가능성 제기"

## 민주당, 신당 우려 목소리도 신정훈 "원팀 염원 응답" 호소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창당 시점을 내년 초로 제시하며 신당론에 불을 지폈다.

이를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는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두 사람의 회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저녁 MBN 뉴스에 출연해 "장당은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다" 말하는 것은,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내년 초를 창당 시점으로 밝히며 제3지대 신당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비명(비이재명)계 4인 '원칙과 상식'도 이달까지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이재명 연대'의 집단 탈당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언제든 만날 의사는 내비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의 화합을 위해 이 전 대표를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동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진 한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지는 않다.

이 전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위성 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이 대표에게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요구대로 현행 제도 유지를 받아들인다면 양측간 소통의 고리

를 만들수 있다.

물론 이것 만으로 이 전 대표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민주적 시스템 타파와 도덕성 회복, 공정한 공천,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등도 요구했다.

이는 당 혁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라는 당 안팎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나 내년 총선 불출마 등이 나올 경우 '명나회동'이 이뤄져도 '빈손 회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할 이 대표로서는 사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인 탓이다.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친낙계인 설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탈

당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총리' 연대로 주목받아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당내 인사들도 많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대선 패배)0.73% 차이, 작은 분열의 결과는 민주당의 패배를 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가져왔다"며 "원팀 민주당을 염원하는 전남도민과 당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부디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선 결국 이 대표의 결단에 따라, 이 전 대표와 비명계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며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폼수 위성정당 강력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12일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담겨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줬던 위성정당 비례제는 이제 과감히 퇴출시킬 때가 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책임 정치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역사를 되돌려 병

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진행됐다"며 "눈앞에 아른거리는 정치공학은 소탐대실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누렸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버리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 노형욱 "민생경제 바로 세우겠다" 광주 동남갑 출마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원소장(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2일 "무능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맞서 당당히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바로 세우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노형욱 소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일원으로, 민생을 외면한 무능한 정권과 싸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 승리를 이뤄내고, 검찰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출신 국무조정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정운영 경험을 살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부터 되살리겠다"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며, 민생 중심 SOC로 지방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남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광주 남부권 메가 허브(HUB) 플랫폼' 구축전략과 함께 5대 비전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효천역 중심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완성, 인공지능 바닷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첫 과제로 제시했다.

노 소장은 광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국토부장관을 역임했다. 김은지 기자

## 김원이 "의대정원 확대 총파업 의사협회 규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사진)은 12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폼수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

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12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폼수 위성정당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장제원, 총선 불출마 선언... 친윤 불출마로 이어지나

### '김기현 거취' 결단 압박 현 지도부 유지 주장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사진)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른바 '주류 희생' 대상으로 거론되는 친윤계 핵심 실세들의 불출마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명이라 생각한다. 저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협치 출마' 혁신안을 내놓은 뒤 '희생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들 가운데 장 의원이 가장 먼저 '백의중군'을 선언한 것이다.

당초 장 의원은 '주류 희생 혁신안'이 발표된 후에도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인요한 혁신위의 조기 해산, 혁

신 요구에 대한 당내 인사들의 무응답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고심 끝에 이날 가장 먼저 결단을 내렸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희생 대상자들도 '불출마 또는 협치 출마' 압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내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김기현 대표다. 김 대표는 올해 3·8 전당대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이뤘고, 친윤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김 대표 또한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불출마로 방향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 대표는 이날 일정을 비우고 잠행 중이다.

친윤 핵심 실세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박성민 의원도 불출마 또는 협치 출마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장 의원의 결단, 이후 김 대표와 친윤 인사들의 희생 움직임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뉴스 킵 박지훈입니다'에서 "앞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당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려운 지역이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 마련된 것"이라며 "김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주장해 온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장 의원이 되살렸다"면서도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 없이 총선 승리는 어렵다"고 압박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친윤 핵심의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당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되면 수정안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사진) 원내대표는 12일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국회 예산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

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고자 했다"며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은 나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서 움직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개각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